

따라 다니면서 본 일터불자의 일과

반야심경 되뇌이며 살리는 법대로 판결

서초 반야회 총무 박홍우 판사

'활인(活人)'이란 화두를 들었다= 1월 13일 오전 8시 반. '붓다의 법'과 '세간법', 두 개의 법속에서 사는 불자를 만났다. 불자법조인의 모인 서초반야회 총무 박홍우 판사(52·서울지방법원 제5형사부). 재판 서류들이 수북이 쌓인 집무실에서 기자를 만났다. 인사는 잠시, 곧바로 부심 판사들과 회의가 이어졌다. 오늘 검토해야 할 서류만 2천여 페이지. 손 놀릴 틈이 없다. 양형을 조율하고, 판결문도 마무리해야 한다. 오전 10시, 박 판사가 판결문을 다시 들

어다봤다.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 20대 청년의 판결문이었다. 박 판사가 잠깐 동안 눈을 감았다. 5분간의 침묵...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제 결정은 최종 판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오판의 가능성은 없었나. 양형은 적절했는가를 세간 법에 묻고 불법에 묻습니다." 박 판사는 언제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참선을 한다. 화두는 '활인(活人)'을 든다. 판사는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되새기



'붓다의 법'과 '세간법', 두개의 법속에서 산다는 박홍우 판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불자라고 말한다. 20년 전 초임 판사 시절부터 판결 직전에는 반드시 '반야심경' 한문 너 자를 사경했다. 판사로서의 직업적 양심과 불자로서의 신심을 다지기 위해서다. "불교는 속직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공 심은 데 풍 나고, 팔 심은 데 팔 나 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알려주기 때문입

우리불자회는요

국제청 보리회

"중생 개개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를 축적하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져 도탄에 빠진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정직한 백성들은 모든 중생들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대살자니건자소설경> 건강한 조세 문화의 정착을 부처님 말씀에서 배웁니다. 납세의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데 도움이

빠짐없는 정기법회 불심 기르기 원동력 조세업계 불자회와 지속적인 활동 교류



국제청 보리회원들이 지난해 개심사에서 개최한 합동 성자순례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불교모임 선우회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움을 주는 불자회. 부처님의 대자비 정신에서 신심을 키워가는 국제공무원 수행단체. 우리 불자회 국제청 보리회가 걸어가고 가야 할 길입니다. 창립은 지난 96년 7월 30여명이 모여 서울 종로경찰서 경승실에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모로 벽찬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서원했던 도반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먼저 정기법회를 꾸준히 열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이면 서울 조계사에서 법회를 봉행해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키워왔습니다. 또 봄 가을에는 평창 월정사, 상원사, 충남 감사, 마곡사, 서귀포 월라사 등 전국의 사찰을 찾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런 수행활동은 현재 전국 6개 산하에 200여 명의 불자회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그간 순탄한 길만 걸어온

손님 모두가 부처님 피안의 뗏목처럼 편하게

안양 운불련 유경순 기사

승객이 내리자 유 부회장이 말했다. "저 만큼 하루에 많은 부처님을 태우는 불자는 없을 거예요. 모시는 손님 모두를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피안의 뗏목처럼 가는 목적지까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데려다 주니 이 같은 수행은 어디서 하겠어요." 오후 2시. 늦은 점심을 했다. 승객들 눈치 보느라 못했던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불교를 믿게 된 인연, 기사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연, 운불련 수행활동... 20여 년 전, 처음 핸들을 잡던 날, <반야심경>을 기가막히게 붙이고 암송했다고 했다. 불자로서의 자기점검과 운전기사로서의 안전운행을 다짐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수행의 폭은

넓어졌다. 지난 98년에 운불련 안양지역회 창립을 주도했고, 2001년에는 전국 운불련 모임 가운데 첫 여성회장으로 활동했다. "불교의 매력은 자유로움과 편안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힘들어도 신나게 수행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부처님 법 믿으면 되지요." 유 부회장은 올해부터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제2의 수행활동을 시작할 생각이다. 일터불자들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유 부회장이 운행할 '달리는 법당'의 유쾌한 질주기가 대된다.

차안 연주·연꽃·불상 장영 타종교인도 기분 좋게 승차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달리는 법당', 부처님을 매일 태운다= 1월 2일 오전 8시 안양역 역사에서 출근 인파가 쏟아져 나왔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유경순(50·법명 도연화) 前 운불련 부회장과 하루 동안의 불법합참(을 위해서다. "유 불자님! 지금 어디세요?" / "네,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택시가 섰다. 창문 틈으로 경전독송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서 타세요." 타자마자 차 안을 둘러보았다. 그야말로 움

직이는 법당이다. 불상은 기본, 옆주에서 진언, 풍경, 연꽃 장엄에 이르기까지. 법당을 고스란히 옮겨놓았다.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따로 수행할 곳을 찾을 필요가 있나? 제 차가 바로 수행처죠." 첫 손님이 탔다. 이것저것 살펴보는 승객의 시선이 분주하다. 천주교 신도라는 손석훈(41·안양시 박달동) 씨는 "꼭 절에 온 것 같다"며 유쾌한 웃음을 지었다.



"어서 오세요 달리는 법당입니다." 거리의 포교사 유경순 불자가 미소짓고 있다.

마하몰 갑신년 설맞이 특판기획전

구매고객 모두에게 고급원목단주를 증정합니다. 무료배송 (단 3만원이하 제품은 배송료 4,000원 별도)

[기간] 2004년 1월 14일 ~ 2월 13일까지 (딱, 한달간)

희담석 스님용 보료 (15%할인)
판매가: 2,800,000원
↓
특판가: 2,380,000원
사 이 즈 : 90cm X 180cm X 10cm
※ 설치비 별도(10만원)

희담석 방석 (20%할인)
판매가: 198,000원 ⇒ **특판가: 158,400원**
사 이 즈 : 38.5cm X 35.5cm 색 상 : 회색, 살구색

희담석 찜질팩 (20%할인)
판매가: 38,000원 ⇒ **특판가: 30,400원**

희담석 체험사례

> 경안스님<전남 덕평사>
좌선을 하거나 혹은 경사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찜질 양에 있다보니 고질적인 저림이 있어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 <희담석 찜질팩>을 소개받아서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뒀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 되어서 좋다.

> 김유삼<여/66세,강북구 미아동>
한 달에 대어선 번씩 얼굴이 सू고 몸집이 10%정도 줄었다.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뒀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 되어서 좋다.

37° 기배개
37° 기 제품 완개더 100개 한정 판매

37° 기방석
37° 기 배개 - 일반 메모리폼 배개가 사십니다
판매가: 69,000원 ⇒ **특판가: 60,000원(2개)**
색 상 : 아이보리, 하늘색
사 이 즈 : 47cm x 29cm x 8cm

37° 기방석
판매가: 40,000원 ⇒ **특판가: 20,000원(2개)**
색 상 : 연보라, 베이지
포 과 : 생리통, 냉대야, 두통, 냉습, 신장기능저하, 신진대사 불장애 좋습니다.



왕토달마 100개 한정 판매
판매가: 198,000원 ⇒ **특판가: 98,000원**
규 격 : 가로 25cm x 세로 30cm
재 질 : 지리산 황토 100%
특 징 : 왕토달마를 집안에 모시고 물을 뿌리면 겨울철에 가습기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달마원목시계(원형, 팔각형)
판매가: 65,000원
↓
특판가: 각 33,000원
재 질 : 체리목 크 기 : 400mm
특 징 : 고급 무소음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고장이 없고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1년만 무상 A/S)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하몰 주문 전화 02)732-1520
농협 : 053-12-113210 이통규